2026. 1. 26

금융 Weekly Insight

확대된 상위사와의 시가총액 격차 – 금융 업종 내 주도주에 초점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1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가 5000을 넘어선 한 주였음. 이러한 가운데, 금융 업종은 증권주가 6.9%의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은행과 보험 또한 각각 5.1% 및 4.8%의 견조한 상승세 시현.
- 증권주는 Valuation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시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전고점을 넘어섬. 은행 또한 견조한 상승세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고점에 근접, 보험은 시총 상위 생보주 위주로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음.
- 일부 주도주 중심의 주가 상승세 속에서 일각에서는 시장 내 시가총액 격차 확대에 주목. 즉, 현대차가 연초 대비 140.6%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04.4조원을 기록, 격차를 줄인 가운데, 후속 기업의 격차 줄이기 관점에서 금융주에 일부 관심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유의미한 시가총액과 주주 환원 강화 기조에 초점: 은행주는 5.1% 상승세를 시현. KOSPI 상승을 견인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각각 900.4조원 및 558.4조원인 가운데, 올해 들어 연초 대비 140.6% 급등한 현대차 시가총액이 104.4 조원으로 KOSPI 시총 3위를 기록. 하지만,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은 각각 51.7 조원 및 40.7조원으로 KOSPI 시총 순위 11위와 17위를 기록 중이지만, 1~3위사와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은행 업종은 PER은 평균 7.4배, PBR은 0.7배로 시장 대비 매력적인 가운데, 올해 사이클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은행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고배당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연말 결산 배당 인상은 물론, 주주 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초점 필요. 즉,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재차 시가총액 격차가 좁혀질 여지가 큰 만큼, 보다 긍정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라 판단.
- 증권 – 시선은 이미 1분기로: 증권 업종 주가는 6.9% 상승세를 시현하며 KOSPI 업종을 아웃퍼폼 하였음. KOSPI 5,000pt 돌파라는 상징적 이벤트와 더불어, 주중 정부 및 여당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언급되며 증시 전반 강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증권 업종의 경우 계절성 대비 양호할 4분기 실적을 넘어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기대감이 옮겨가고 있음. 실제로 1월 일평균거래대금 또한 50조원으로 4분기 대비로도 40% 이상 증가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보험 – 생보사 주가 강세 시현: 보험 업종은 w-w 4.8% 상승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를 시현하였음(삼성생명 +8.5%, 한화생명 +6.7%). 전주 생보사 주가 강세 요인으로는 1) 국내외 장기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보험사, 특히 부채 듀레이션이 긴 생보사에 대한 수혜 기대감 및, 2) 주 후반부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테마 부각에 따른 관련 업체 지분 보유 및, 잠재적 지분 인수 가능성 보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다만, 후자인 디지털 자산 관련 모멘텀의 경우 아직 관련 입법이 진행중이고, 실제 딜 진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만큼,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18)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기대 점증 – 주담대 금리 추가 상승 예정**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 이에 시장 금리 및 대출 금리도 상승 압력이 점증. – 4대 시중은행은 주담대 혼합형 금리를 4.120~6.200%에서 4.130~6.297%로 인상. 하단은 10bp, 상단은 9.7bp 상승. – 더 나아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보도.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KB는 19일부터 주담대 주기, 혼합형 금리를 15bp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 이에 다른 은행들도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 은행 NIM에 긍정적 요인:** 지난해까지 은행 업종의 화두는 금리 인하 폭과 이에 따른 NIM 축소 우려. 물론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3Q까지 NIM은 성공적으로 방어된 것으로 판단. 이러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없을 경우, 은행은 종전의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NIM 축소 압력이 완화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주기,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승 – 주담대 금리 리프라이싱에 따른 NIM 개선 효과도 기대:** 한편, 은행들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을 반영, 주기형 및 혼합형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 이는 은행들의 입장에서 5년 전 저금리가 적용되었던 해당 주담대의 리프라이싱 주기 도래 과정에서 NIM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물론, 과거에는 이들 대출이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며 은행들은 이러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갈아타려는 대출의 금리가 높고 주담대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담대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은행들은 과거에 비해 NIM 개선 효과가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
	(1/19) 은행 수시입출식 수신 50조원 감소 – 은행 자금 이탈 가속 – 시중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고 보도. 새해 들어 은행에서만 50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하는 등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는 것. 더 나아가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섬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도. –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연초 들어 10영업일 만에 연말 대비 52.6조원 급감. 금융권에서는 연초 자금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유출은 이례적이라 보도. –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은 증시로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다고 언급. 투자자 예탁금은 15일 기준 92.6조원으로 8일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0조원 선을 유지. 참고로, 이는 연말 대비 4.8조원 증가한 수준.	**50조원이 다 증시로 갔을까? – 1월 수시입출식 예금 감소는 연초 기업 수신 감소에 기인:** 50조원이 모두 증시로 흘러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됨. 실제로 요구불 예금은 해마다 1월이 되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25년 1월 32.3조원, 24년 1월 55.2조원, 23년 1월 59.5조원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유입된 자금이 연초 부가세 납부 수요 등으로 인해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 참고로, 25년 1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24년 말 계엄 사태 후 내수 경기 위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24년 1월에는 연초부터 1월 중순까지 조정장을 거쳤던 바 있던 만큼, 1월 요구불예금 감소 전액을 모두 증시와 관련짓는 것은 오류를 야기 가능. **다만, 은행 요구불 예금 감소 분 중 일부는 증시로 유입 유추 가능:** 물론, 이러한 요구불 예금 감소 분 중 일부는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유추 가능.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은 전월 대비 4.8조원 증가하였기 때문. 다만, 이는 요구불 예금 감소 분의 10% 수준인 점에 초점 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조달 역량이 관건 중 하나:** 은행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수익성에 있어 관건 중 하나는 조달이 될 것으로 예상. 은행들은 올해 생산적 금융 등을 이유로 대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즉, 은행의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수요는 높아질 전망인 만큼, 조달 비용률의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지난 금리 인상기에는 일부 인터넷은행들을 중심으로 요구불 예금에 대해 2%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쟁까지 있었던 만큼, 향후 저원가성 수신 강화 및 금리 정책이 관건.
	(1/21) 기업대출 증가한 반면 사장님 대출은 여전히 저조 – 은행권 대출 양극화 – 5대 시중은행의 25년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44.7조원으로 1년 간 24.1조원, 2.94% 증가.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한 결과 기업대출 규모가 확대된 것. – 그러나, 차주별 대출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 대기업 대출은 170.3조원으로 11.9조원, 7.54%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674.4조원으로 13.4조원, 3.98% 증가.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1.2조원 감소. – 이는 여전히 1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	**26년에도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중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초점 전망:** 올해도 시중은행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보다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 이는 생산적 금융 강화로 인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반면, 여전히 환율, 금리 등으로 대변되는 매크로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은 CET-1 비율 및 주주 환원 강화 기조의 유지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기회 활용에 대한 고민 필요:**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하반기 Valuation 추가 조정을 야기한 이유 중 하나는 당초 기대를 하회하는 대출 성장률 하락.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카카오뱅크는 SOHO대출에 보다 성장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러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지난해와 같이 보수적일 경우, 이는 경쟁 강도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1) 새해에도 가계대출 성장세는 여전히 저조** - 1월 19일을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7.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3조원, 0.04% 감소. 주담대는 0.4조원, 0.06% 감소. - 연초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고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재개하였음에도 불구, 예상과 달리 가계대출 수요는 미미한 상황. - 금융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례적이라 언급. 이를 두고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강도가 컸던 효과와 금리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도.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주담대 금리 상승 영향 고려 필요:** 지난해 4Q부터 이어진 시중 금리 상승은 주담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음. 이에 주담대 상단은 6%를 넘어선 상황. 즉, 이와 같은 금리 수준 및 강화된 규제를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유인은 약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 **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 자금의 이동:** 당초 정부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은행들은 부동산 금융대신 생산적 금융을, 가계 또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큰 축이었다고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증시 호황과 더불어 국내 주식 투자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은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해석 가능.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금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할 것. **다만, 부동산 시장의 고민도 고려 필요:**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는 분명 경제에 대한 부담 요인이라 판단. 다만, 부동산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때, 거래의 활성화 및 안정적이고 양질의 주거 공급 확대 또한 분명 필요한 요소인 점은 고려 필요.
	(1/22)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2,720억원 부과 발표 - 공정위는 4대 은행의 LTV담합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720억원 부과를 발표.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 869억원, KB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서로 LTV 정보를 공유하며 LTV를 엇비슷하게 조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2년간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얻은 이자수익은 6.8조원에 달한다고 언급.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출액의 4%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과징금 산정 시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발표. - 당초 1~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과징금은 우려 대비 완화된 수준.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담합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액은 제외하였다고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담이 RWA 증가 및 이에 따른 생산적 금융 차질 야기 가능성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한편,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 소송 등 대응 방안 결정 방침.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은행들은 4Q25 실적에 충당금 반영 전망 - 다만, 100%는 아닐 것으로 추정:** 은행들은 해당 event가 결산 전에 발생함에 따라 관련 충당금을 4Q25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 다만, 금액은 과징금 전액을 모두 충당금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가령, 은행들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은행들은 관련 충당금을 승소 확률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 즉, 승소 가능성을 상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원론적으로는 충당금 적립률이 50%를 하회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추정. 이 경우, 은행들은 300~400여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는 만큼,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 **불확실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지난해 언론에 보도되었던 LTV 담합 관련 과징금은 2조원까지 언급 (각 은행별 5천억원) 되었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올해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는 부담 요인 중 하나였음. 그러나, 당초 우려 대비 감소한 금액이 발표된 것은 물론, 이를 25년에 상당 부분 인식하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 및 26년 실적에 대한 부담을 일차적으로 덜고 간다는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
	(1/22) 우리은행, 한화에 최대 3조원 지원 - 방산 생태계 육성 - 우리은행은 한화그룹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 협약을 체결. 양사는 첨단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와 수출입금융, 해외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 우리은행은 한화그룹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맞춰 지원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계획. 우리은행은 향후 5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도. - 우리은행은 협력의 연장선에서 한화그룹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 동사의 자산 특화 관리 채널인 Two Chairs를 활용, Private Banking 컨설팅을 제공. - 참고로, 우리금융은 지난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한화그룹 대상 금융 지원 - 규모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선제적 모델 제시 긍정적:**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3조원은 5년간 집행 예정인 만큼, 우리은행 149조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0.4%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 가능. 더 나아가, 이는 한화 그룹과의 협약으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계열사들인 점도 고려 필요. 즉,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닌 반면, 생산적 금융 관련 하나의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기업금융을 활용한 플러스 알파 유치 노력에도 초점 필요:** 더 나아가, 동사는 한화 그룹향 자금 지원과 더불어 한화 그룹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초점 필요. 즉, 이를 통해 동사는 오히려 양질의 개인 고객 유치 및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판매 강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즉, 생산적 금융이 단순히 은행의 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은행과 기업 간 Win-Wi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1/19) 수익률 따라 움직이는 퇴직연금…은행 자금, 증권사로 머니무브**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실시된 이후 연금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전통적 강자인 은행업권에서 머물던 연금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짐. - 작년 은행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5.4% 증가하는 동안, 증권업권의 잔액은 26.5% 성장. - 업계에서는 최근 증권사들이 연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원인은 은행과의 수익률 격차에 있는 것으로 분석.	**퇴직연금 수익률 논의 가속화 시, 증권사 수혜 지속 기대:** 업권 대내외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정부여당에서도 국내 증시 강세와 더불어 퇴직연금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제는 결국 연금 잔액의 자본시장 노출도를 높이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지도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증권 업종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보험	**(1/21) 손해율 무조건 90% 이상 적용…보험사 '실적 뻥튀기' 막는다** - 올해 2분기 결산부터 보험사들은 1) 경험통계가 부족한 최근 5년 이내 신규담보 손해율은 최소 90%, 2) 갱신형 상품의 목표 손해율 또한 90%로 적용해야 함. -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미래에 대한 보험사의 자의적 예상이 개입되며 회사별 가정 편차가 발생하고 계리 가정에 대한 적절성 문의가 증가했다고 지적. - 당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손해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사업비 반영을 정확히 하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2분기부터 부채 평가액 증가 및 CSM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대다수 보험사들의 CSM 조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보험사들의 계리적 가정(손해율, 사업비율) 관련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음. 요지는 보험사별로 미래 가정에 편차가 존재했던 부분을 1) 신규 담보 및, 2) 갱신담보 목표손해율 측면에서 일치되는 기준을 재정립한 것. 이에 따라 목표 손해율을 90% 이하로 설정하였던 담보들의 경우, 기존 대비 가정 변화에 따른 시가부채 증가 및 CSM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상반기 중 해당 영향도가 회사별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1/21)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6%대…6년래 최고 - 지난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6.1%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이는 연말 계절적 요인과 보험료 인하, 물적담보 손해액 증가 등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연간 기준으로도 손해율은 87%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계획.	**자동차보험료 인상 예상되나, 턴어라운드 시점은 내년으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언급되고 있으나, 그 수준(1% 중반)을 고려할 때, 현재 악화되고 있는 속도를 즉시에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손해액 컨트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해당 효과는 2분기부터 관찰될 것으로 기대.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1-26 (월)		미국 1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미국 10, 11, 1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미국 11월 내구재주문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1월 IFO 기업환경지수
		일본 11월 경기동향지수 (수정치)
2026-01-27 (화)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미국 11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11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미국 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중국 12월 공업이익
2026-01-28 (수)	11월 인구동향	미국 FOMC 회의 발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독일 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2026-01-29 (목)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12월 총통화(M3) 공급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12월 건설수주
		일본 12월 신규주택착공건수
		일본 1월 소비자신뢰지수
2026-01-30 (금)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미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
	12월 관광통계	미국 1월 시카고 PMI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유로존 12월 실업률
		독일 4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독일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독일 1월 실업률
		영국 12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영국 1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1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12월 실업률
		일본 12월 산업생산 (예비치)
		일본 12월 소매판매
		대만 4분기 GDP (예비치)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1-29 (목)		미국 마스터카드, 비자 실적 발표
2026-01-30 (금)	하나금융지주 실적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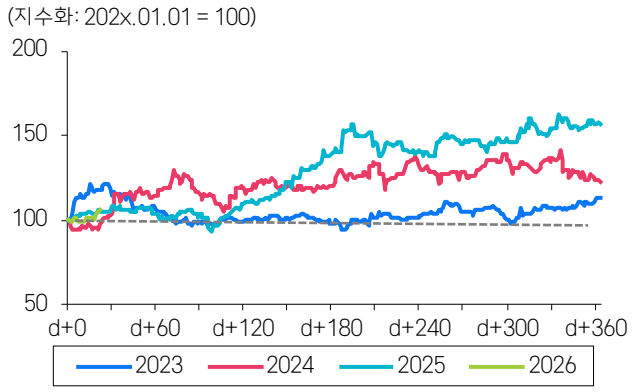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000.6	4,990.1						3.1%	21.5%	98.4%	18.4%
	KRX은행	182.6	1,387.7						5.1%	5.0%	58.2%	6.4%
	KRX증권	65.6	1,888.8						6.9%	21.1%	146.7%	23.5%
	KRX보험	84.4	2,750.2						4.8%	1.1%	53.9%	2.7%
	결제 지수**	1.446	n/a						15.1%	7.1%	65.0%	10.2%
은행	KB금융	51.7	135,600	55.4	0.8	10.7	7.8	8.0	3.6%	7.5%	53.0%	8.7%
	신한지주	40.7	83,900	50.6	0.7	10.3	7.2	9.5	5.9%	7.8%	66.8%	9.1%
	하나금융지주	28.1	101,100	49.6	0.7	10.4	6.5	8.1	4.9%	6.5%	71.1%	7.4%
	우리금융지주	21.7	29,550	41.4	0.6	10.4	6.4	6.3	5.9%	3.7%	87.5%	5.5%
	기업은행	16.8	21,050	33.2	0.5	8.6	6.5	-0.6	2.7%	(0.7%)	39.6%	0.5%
	BNK금융지주	4.9	15,900	44.4	0.4	8.5	5.4	9.1	6.4%	(1.9%)	34.1%	0.2%
	JB금융지주	4.6	24,300	39.3	0.4	9.3	4.7	8.8	1.5%	(7.6%)	25.2%	(5.3%)
	iM금융지주	2.3	14,400	45.0	0.8	13.1	6.1	9.0	2.1%	(8.6%)	58.2%	(7.4%)
	카카오뱅크	11.2	23,500	50.0	1.5	7.1	22.3	7.8	10.1%	6.3%	14.4%	8.8%
증권	미래에셋증권	19.7	34,800	58.0	1.3	11.2	11.8	14.0	11.5%	50.3%	328.0%	49.0%
	NH투자증권	8.6	24,000	49.3	0.9	10.9	8.5	2.0	6.0%	12.7%	67.9%	13.7%
	한국금융지주	10.9	195,800	20.2	0.9	13.6	7.1	-22.4	7.2%	21.5%	154.9%	21.1%
	키움증권	9.3	343,500	28.3	1.1	19.1	6.7	14.4	4.1%	14.5%	175.9%	18.7%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8	107,400	49.9	1.6	24.4	7.0	8.8	1.9%	(1.7%)	(1.5%)	(5.0%)
	삼성화재	22.6	492,000	41.1	1.2	12.4	9.5	12.8	1.1%	(1.4%)	43.9%	(1.0%)
	삼성생명	37.0	185,100	45.0	0.6	5.3	12.1	4.1	8.5%	13.1%	121.4%	17.4%
	DB손해보험	9.0	130,000	28.7	1.0	19.2	5.2	15.6	5.0%	0.2%	41.6%	(0.8%)
	한화생명	3.0	3,440	16.4	0.2	5.6	4.1	37.8	6.7%	1.3%	39.0%	5.7%
	현대해상	2.5	27,950	11.7	0.5	17.5	2.9	18.3	4.3%	(11.1%)	14.5%	(9.3%)
결제	카카오페이	9.2	67,800	n/a	n/a	0.0	0.0	0.0	39.5%	37.2%	168.5%	38.1%
	NHN KCP	0.7	18,490	n/a	n/a	0.0	10.7	17,970.1	27.3%	22.0%	159.7%	24.0%
	KG이니시스	0.3	10,430	n/a	n/a	0.0	-0.1	28,369.8	6.5%	(4.0%)	21.1%	2.1%
	KG모빌리언스	0.2	4,760	n/a	n/a	0.0	22.1	38,567.1	6.1%	(4.3%)	4.6%	1.3%
	나이스정보통신	0.2	23,550	n/a	n/a	0.0	7.5	5,741.9	1.1%	(7.3%)	35.5%	(7.1%)

참고: 1/23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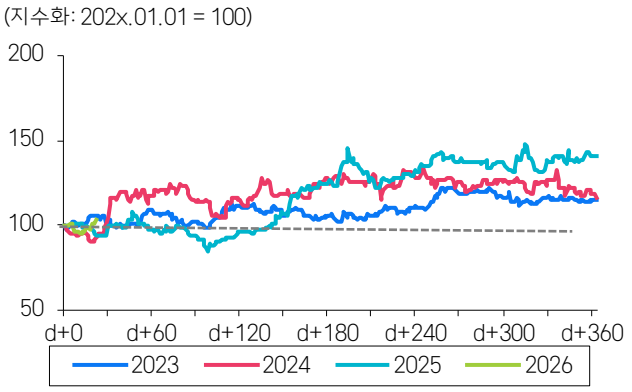
1.4 주가 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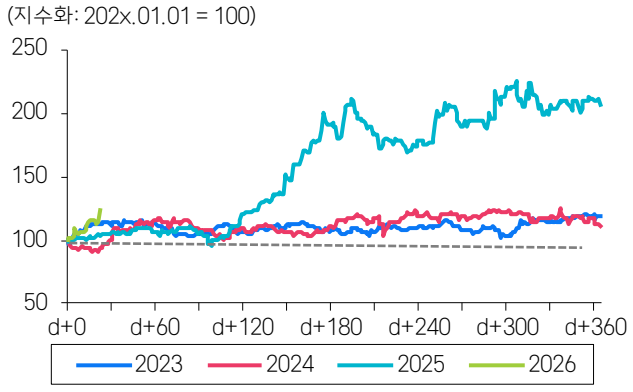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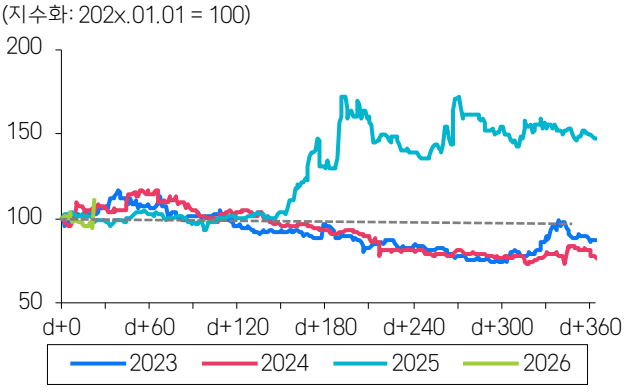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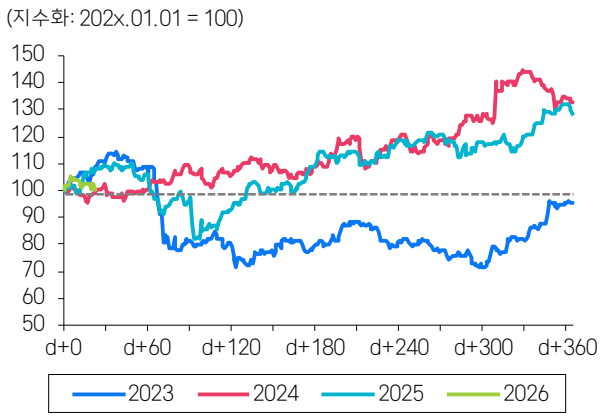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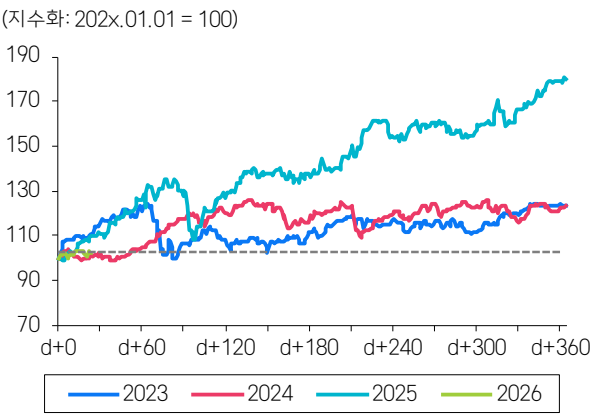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02.7	85.1	2.2	16.3	14.0	6.4	(4.7)	(9.6)	12.4	(7.6)
		Bank of America	377.7	99.0	1.3	11.2	11.9	12.1	(2.4)	(8.1)	11.2	(6.0)
		Citigroup	203.2	119.7	1.0	9.1	11.1	46.5	(3.8)	(6.6)	39.4	(2.7)
		Wells Fargo	273.0	98.6	1.5	12.7	12.5	11.4	(1.6)	(8.8)	12.5	(6.7)
		PNC Financial	86.0	66.5	1.5	12.8	12.2	8.6	(1.7)	2.8	10.0	5.1
	유럽	Banco Santander	182.4	77.6	1.4	13.4	10.1	13.6	(0.6)	4.9	114.6	4.1
		Unicredit	132.5	84.8	1.6	16.7	9.8	5.7	(1.2)	2.6	64.0	1.2
		BBVA	142.6	89.6	2.0	18.4	10.3	10.8	0.6	6.7	96.6	5.1
		ING Group	83.5	81.9	1.4	13.0	10.6	10.2	(3.6)	1.6	51.7	1.2
		Lloyds	81.7	90.2	1.4	13.4	10.2	42.6	(0.4)	4.8	64.4	3.5
		Barclays	90.7	62.7	0.9	10.9	9.1	25.5	(1.8)	2.2	63.9	0.9
	일본	Mitsubishi UFJ FG	216.9	60.3	1.4	10.9	13.4	10.2	(5.2)	14.1	48.7	13.7
		Sumitomo Mitsui FG	137.8	54.8	1.3	10.7	12.5	8.8	(1.5)	8.6	47.8	9.9
		Mizuho FG	108.0	65.9	1.4	11.4	13.1	9.4	(1.7)	18.8	68.9	18.1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47.7	30.4*	0.5	8.9	6.0	2.0	(3.1)	0.3	17.1	(2.2)
		China Construction Bank	261.0	29.8*	0.5	9.5	5.8	1.6	(2.8)	0.7	20.0	(1.0)
		Agricultural Bank of China	330.6	31*	0.6	9.7	6.7	1.5	(4.3)	(5.2)	26.1	(8.0)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37.3	N/A	1.4	6.3	20.7	(8.9)	(2.7)	(4.0)	3.8	(4.5)
		AIG	39.0	51.3	0.9	10.1	9.4	흑전	(0.8)	(16.4)	(2.0)	(15.5)
		Travelers Insurance	60.4	58.0	1.5	16.5	9.9	3.4	3.1	(5.5)	14.8	(4.3)
	유럽	Allianz	164.0	76.7	2.1	18.1	12.0	7.2	(4.4)	(6.9)	17.8	(6.8)
		AXA	93.4	59.5*	1.6	16.8	9.2	(2.6)	(4.0)	(8.3)	5.0	(7.9)
		Generalli	61.4	56.7*	1.5	14.1	10.9	11.3	(4.4)	(6.9)	12.6	(6.5)
	일본	Tokio Marine	73.1	44.1*	2.1	20.0	11.1	4.0	(2.9)	1.0	12.8	0.7
		Daiichi Life Insurance	32.3	49.9*	1.3	11.6	11.0	8.0	(4.3)	4.4	31.7	3.8
	중국	Ping An Insurance	161.9	33.9*	1.1	13.8	7.7	7.0	(2.4)	1.2	54.0	2.8
		China Life Insurance	166.9	21.4*	1.3	18.7	6.7	(15.1)	(1.3)	10.9	117.8	15.2
		PICC P&C Insurance	45.2	36.5*	1.1	14.8	7.6	1.1	(1.9)	(4.6)	25.2	(3.2)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6.2	93.9	2.3	16.8	14.3	11.3	(4.5)	0.9	44.3	4.5
		Morgan Stanley	284.5	76.7	2.4	17.2	14.7	7.6	(5.3)	(1.5)	29.9	0.8
		Charles Schwab	186.8	89.8	3.5	23.5	15.2	17.9	(1.6)	0.3	24.9	2.3
		Robinhood	96.4	34.7	8.7	19.3	42.2	23.3	(1.6)	(11.2)	109.3	(5.4)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49.2	85.1	7.3	35.5	20.6	13.7	(0.8)	(5.6)	12.6	(2.2)
결제	미국	VISA	638.2	21.6*	14.6	67.6	22.7	13.2	(0.6)	(8.2)	(1.2)	(7.0)
		MasterCard	471.2	18.1*	42.9	201.0	27.6	16.4	(2.7)	(9.4)	(1.6)	(8.1)
		PayPal	53.0	6.3*	2.4	25.7	10.1	9.2	(0.5)	(5.7)	(36.5)	(3.0)
	유럽	Adyen	52.2	0*	6.6	22.2	33.6	21.9	0.3	2.1	(8.1)	1.6
핀테크	미국	Block	40.6	0*	1.6	8.7	22.6	19.3	1.3	1.2	(24.6)	2.7
		Upstart	4.4	0*	4.7	19.3	38.8	132.9	(5.9)	(6.1)	(32.8)	3.6
		Affirm	23.6	0*	4.8	13.8	42.7	62.7	(4.5)	(6.0)	28.2	(4.0)
	중국	LuFax	2.4	N/A	N/A	2.4	N/A	흑전	0.0	0.0	(1.1)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23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